남양주시, 16개 읍·면·동 함께한 첫 청소년 축제 개최

이정애 기자 | 승인 2026.11.09 20:10

> 지난 8일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서 첫 연합 청소년 축제 열려
> 주민자치회·청소년 시설 참여해 체험 부스 10개 운영
> 밴드·댄스 경연과 특별공연으로 청소년 끼와 재능 선보여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6 남양주 펀(FUN)타스틱 페스티벌'이 마무리됐다. / 남양주시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 조직이 처음으로 힘을 모아 청소년 축제를 열었다. 지역별로 진행하던 행사를 하나로 연결해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재능을 펼치는 무대를 마련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6 남양주 펀(FUN)타스틱 페스티벌'이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청소년 축제 추진단이 공동 개최했다.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으로 연합해 준비했으며,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된 추진단이 연초부터 기획과 운영, 안전 관리 등을 맡았다.

행사장에서는 오전부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6개소와 정약용 펀그라운드 등 청소년 시설 4개소가 총 10개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과 가족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오후 개막식은 16개 읍·면·동의 화합과 청소년의 성장을 표현한 창작 무용 '태동'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본선 경연에서는 밴드와 댄스 분야 청소년팀들이 무대에 올라 실력을 선보였으며, 직장인 밴드 공연과 태권무, 디제잉 쇼 등 특별공연도 이어졌다. 행사는 우수 참가팀 시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장태식 청소년 축제 추진단장은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무대를 선물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며 참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영균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해 청소년이 주인공인 축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청소년들의 무대와 시민들의 응원에 감사를 전하며,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애 기자